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7, pp. 93-127
<https://doi.org/10.29212/mh.2020.117.9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6년 케스티우스 갈루스(Cestius Gallus)의 전략 분석*

배은숙**

1. 머리말
2. 원군 파견의 시점 분석
3. 가바오 전투 패배의 원인 분석
4. 베스호론 전투 후 전략적 철수
5. 맺음말

1. 머리말

로마가 유대 지역에 관여하게 된 것은 기원전 1세기 하스모네아(Hasmonea) 왕조에서 왕위 경쟁이 발발한 이후였다.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Gnaeus Pompeius)가 예루살렘을 장악했으나

* 이 논문은 2020년 계명대학교 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 칼리지 조교수(jejs@kmu.ac.kr)

기원전 40년 파르티아(Parthia)의 비호 아래 하스모네아 왕가가 재건되어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후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그 결과 기원전 37-기원후 4년 로마에 예속적인 헤로데스(Herodes) 왕이 옹립되었다. 6년 아우구스투스(Augustus) 황제의 개혁으로 유대는 기사계급이 총독으로 통치하는 로마의 직접 지배를 받는 속주가 되었다. 41-44년 아그리파 1세(Herodes Agrippa I)가 유대 왕으로 통치했지만 이후 유대는 다시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¹⁾

64-66년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로루스(Gessius Florus)의 폭정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유대인들은 유대 총독보다 상위에 있던 시리아 총독인 케스티우스(Cestius Gallus)에게 상황을 전했다. 케스티우스는 플로루스를 교체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플로루스가 그리스인이 소유한 유대인 회당을 구매하게 해 달라는 유대인 지도층 인사들에게 뇌물만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12명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플로루스에게 호소했으나 그는 오히려 이들을 체포, 투옥했다. 이런 상황에서 플로루스가 “황제의 필요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예루살렘 신전 금고에서 17탈란톤을 가져가자 유대인들의 분노는 폭발했다.²⁾

플로루스가 카이사레아(Caesarea)에서 2개 대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유대인들의 저항은 만만찮았다. 반란이 유대 전역으로 퍼지면서 페레아(Perea), 키프로스(Kypros), 마카이루스(Machaerus) 등 로마군의 전략적 거점들이 유대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에 케스티우스는 로마군의 권위를 회복하기

1) Dio, 55.28.1; p. Bilde, “The Causes of the Jewish War according to Josephus”,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in the Persian, Hellenistic, and Roman Period* 10.2, 1979, 179-202; E. Paltiel, “War in Judaea: After Herod's death”, *Revue belge de Philologie et d'Histoire* 59, 1981, 107-136.

2) Josephus, *Bellum Judaicum* 2.280-288.

위해 유대 지역으로 갔다.³⁾ 케스티우스는 66년 9월 가바오(Gabao) 전투와 11월 베스호론(Beth Horon) 전투를 이끌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후퇴했다.

67년 베스파시아누스(Flavius Vespasianus)가 유대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5-6월 유대인들의 거점이었던 요타파타(Jotapata), 야파(Japha), 요파(Joppa)를 점령했다. 가을에 접어들어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는 티베리아스(Tiberias), 가말라(Gamala), 타보르(Tabor) 산, 기스칼라(Gischala) 등을 차례로 점령해 나갔다. 68년 로마군은 페레아, 이두메아(Idumea), 예리코(Jericho)에서 전쟁을 지속했다. 69년 로마의 내전에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옹립되자 유대 전쟁의 지휘권은 그의 아들 티투스(Flavius Titus)에게 넘어갔다. 70년 티투스는 공성전을 펼쳐 예루살렘을 장악했고, 71년 유대 전쟁의 승리를 기념했다. 73-74년 유대 반란군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마사다(Masada)가 로마의 군사령관 실바(Flavius Silva)에게 넘어가면서 1차 유대 전쟁은 종결되었다.

유대 전쟁의 과정은 요세푸스(Josephus)가 쓴 『유대 전쟁(Bellum Judaicum)』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는 갈릴리(Galilee) 유대군의 군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지휘하다가 요타파타 공성전 후 로마군의 포로로 잡혔다. 전쟁 후 그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집에 기거하다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 그는 75-79년에 완성한 『유대 전쟁』을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에게 바쳤다.⁴⁾ 이런 관계로 인해 요세푸스의 글이 이들 부자의 지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⁵⁾

3) Josephus, *Bellum Judaicum* 2.318-499.

4) Josephus, *Vita* 423.

5) B. W. Jones, "Titus in Judaea, A.D. 67", *Latomus* 48, 1989, 127-134; Z. Yavetz, "Reflections on Titus and Josephus", *Greek, Roman, and Byzantine*

66년 전쟁을 지휘했던 케스티우스에 대한 요세푸스의 글은 비난 일색이었다. 요세푸스가 전쟁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현대 학자들도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많다. 발코크바(B. Bar-Kochva)에 따르면, 전투에서 진 것은 적이 용감했다기보다 지휘관의 부주의에 기인한다는 요세푸스의 글은 냉철한 군사적 판단이었다. 블룸(J. J. Bloom)도 “경험 없는 케스티우스가 유대 공격에서 수많은 실수를 했고, 이것이 결국 제12군단의 파멸로 이어졌다.”라고 강조했다. 학자들은 케스티우스의 우유부단한 성격, 전략적 실패, 병참선 미확보 등을 패인으로 거론했다.⁶⁾

학자들은 케스티우스의 군사적 능력에 관한 판단을 요세푸스에게 의존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요세푸스의 글 자체는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의 군사적 능력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프라이스(J. J. Price)의 주장처럼 요세푸스의 글에서 티투스의 군사적 실책이 상당수 발견되나 그보다는 티투스가 로마군을 구한 것이 더 강조되어 있다.⁷⁾ 이는 케스티우스의 군사적

Studies 16, 1975, 411-432; T. Rajak, *Josephus: The Historian and His Society*, London, 1983, 203-207; J. J. Bloom, *The Jewish Revolts against Rome, A.D. 66-135: A Military Analysis*, Jefferson: McFarland & Company, 2010, 69-176; Si. Sheppard, *The Jewish Revolt AD 66-74*, Oxford: Osprey Publishing, 2013, 20-38.

- 6) B. Bar-Kochva, “Seron and Cestius Gallus at Beith Horon”,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08, 1976, 13-21; J. J. Bloom, *The Jewish Revolts against Rome, A.D. 66-135*, Jefferson: McFarland & Company, 2010, 69-80; G. M. Paul, “The Presentation of Titus in the *Jewish War* of Josephus: Two Aspects”, *Phoenix* 47, 1993, 56-66; F. Millar, *The Roman Near East, 31 B.C.-A.D. 337*,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71-79; J. R. Curran, “The Jewish War: Some Neglected Regional Factors”, *Classical World* 101, 2007, 75-91.
- 7) J. J. Price, *Jerusalem under Siege*, Leiden: E. J. Brill, 1992, 127-135; G. M. Paul, “The Presentation of Titus in the *Jewish War* of Josephus: Two Aspects”, *Phoenix* 47, 1993, 56-66; B. W. Jones, “Titus in Judaea, A.D. 67”, *Latomus* 48, 1989, 127-134.

능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티투스를 칭송하기 위해 케스티우스를 비교, 활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전투 사례와 비교하면서 케스티우스의 전략과 그 군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케스티우스의 군사적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은 유대 전쟁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원군 파견의 시점 분석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이 빨리 종결될 수 있었는데, 전쟁이 장기화한 것은 케스티우스의 책임이 크다고 하였다.⁸⁾ 케스티우스가 유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반란이 더 확대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전쟁의 조기 종결이 가능했던 첫 번째 기회는 케스티우스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플로루스의 폭정을 중지시켜 줄 것을 간청한 때였다. 케스티우스는 플로루스가 앞으로 자비롭게 통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플로루스가 유대인들을 응징하기 위해 공격하자 유대 역시 병력을 동원했다. 플로루스는 싸움을 시작하게 된 책임을 유대인에게 뒤집어씌우는 거짓 보고를 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케스티우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서신을 보냈다.⁹⁾

이런 상황에서도 군대를 파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블룸은 케스티우스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민간 행정가이다 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¹⁰⁾ 하지만 케

8) Josephus, *Bellum Judaicum* 2.531, 539.

9) Josephus, *Bellum Judaicum* 2.280-281, 333-335.

10) J. J. Bloom, *The Jewish Revolts against Rome, A.D. 66-135*, 74.

스티우스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 문제를 협의할 관료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의 상황은 무턱대고 군대부터 파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선부른 군대 파견은 유대인들의 반발심만 조장할 뿐이었다. 당시 일부 젊은 이들은 싸움을 벌이고자 했고, 카이사레아인들도 소요가 발생하도록 계락을 짜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케스티우스가 즉각적인 군대 파견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 최상의 방책을 논의한 것은 상황에 적합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케스티우스는 관료 회의에서 명확한 사건 경위를 알아야 하니 조사관을 파견하여 유대 상황에 관한 믿을만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조사 후 폭동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징벌을 내려야 할 것이고, 유대인들의 충성심이 여전하다면 신의를 다져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실제 조사관이 파견되었고, 조사관은 유대인으로부터 자신들은 잔혹한 플로루스에게 반대할 뿐 다른 모든 로마인에게는 복종한다는 말을 들었다. 또 로마에 대한 전쟁은 무모하고 끔찍하다는 아그리파 2세의 연설에 유대인들이 설득되자 사태는 진정되는 듯했다. 로마 전체에 대한 반란이 아닌 상황에서 로마군을 파견하여 강제 진압에 나선다면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었다. 따라서 케스티우스의 조사관 파견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¹²⁾

전쟁의 조기 종결의 두 번째 기회는 아그리파 2세에게 설득되고 난 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마사다를 점령하고, 로마 경비병을 죽였을 때였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절을 보내 나중에는 폭동을 진압하기 어려우니 예루살렘으로 와서 반란을 미리 진압하라고 요구했다.¹³⁾ 이때 케스티우스가 군대를 빨

11) Josephus, *Bellum Judaicum* 2.289-290.

12) Josephus, *Bellum Judaicum* 2.333-335.

13) Josephus, *Bellum Judaicum* 2.419-421.

리 파견하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 요세푸스의 주장이다. 블룸은 상황이 심각한 데도 케스티우스는 플로루스가 원정군을 모집한다는 보고를 받은 지 3개월 동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대인들이 플로루스의 폭정을 고발한 것은 네로 통치 12년, 아그리파 2세 통치 17년이 되던 해인 66년 5월 중순이었다. 유대군이 아그리파 궁전을 공격한 것은 9월 중순이었다. 케스티우스가 군대를 모집하여 갈릴리에서 안티파트리스(Antipatris)로, 리다(Lyddda)로 진군한 것은 9월 하순이었다.¹⁴⁾ 상황 인지에서 군대 파견까지의 기간을 5월 중순에서 9월 중순이라고 보면 블룸의 계산과 달리 4개월 정도 걸린 셈이다.

케스티우스의 행동의 신속성에 대한 평가는 그가 이끌고 온 병력의 규모와 이들의 이동 거리, 이동 시간을 보아야 한다. 케스티우스가 안티오키아(Antiochia)에서 이끌고 온 로마군은 제 12군단 전체, 시리아에 주둔하던 나머지 3개 군단에서 선발한 각각 2,000명의 분견대(*vexillatio*), 6개 보병대(*cohors*)와 4개 기병대(*alae*)였다. 여기에 콤마게네(Commagene)의 왕 안티오쿠스 1세(Antiochus I)가 보낸 기병 2,000명, 보병 3,000명과 그 외의 수천 명에 달하는 궁수와 기병이 더해졌다. 아그리파 2세는 기병 2,000명을, 에메사의 소아이무스(Sohaemus)는 기병과 궁수로 4,000명을 보내주었다. 당시 한 개 군단의 병사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으로 잡아도 원군 포함 총 병력은 25,000명에서 35,000명으로 추산된다.¹⁵⁾

23년 이후로 시리아에 4개 군단이 주둔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14) Josephus, *Bellum Judaicum* 2.284-285, 430-440, 513-517 J. J. Bloom, *The Jewish Revolts against Rome, A.D. 66-135*, 70.

15) B. Bar-Kochva, "Seron and Cestius Gallus at Beith Horon", 18; M. Gichon, "Cestius Gallus's Campaign in Judaea",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13, 1981, 43-44.

케스티우스가 이끌고 온 병력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¹⁶⁾ 이 대규모 병력은 한곳에 집결해 있지 않았다. 에메사에서 안티오키아까지는 240km 떨어져 있었다. 군대를 모집, 선별하는 시간, 다른 지역에서 오는 군대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다. 게다가 군수품을 모으는 시간도 있어야 했다. 발렌스(Valens) 황제가 364년 고트족(Goth)에 대한 전쟁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트라키아에 군대를 집결시켜 출발시키는 데 18개월이 걸렸다. 375년 발렌티니아누스 1세(Valentinianus I) 때 콰디족(Quadi)에 대한 원정을 위해 군수품을 모으는 데만 3개월이 걸렸다.¹⁷⁾ 군수품을 수집하는 기간, 군수품을 동물이나 마차에 실어 행렬을 꾸리는 기간 등을 합치면 상황을 인지한 후 곧바로 출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¹⁸⁾

케스티우스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행군한 거리와 시간을 보자. 그는 먼저 안티오키아에서 프톨레마이스(Ptolemais)까지 총 400km의 거리를 14일 동안 이동했고, 프톨레마이스에서 카이사레아까지 총 50km의 거리를 이틀 만에 주파했다. 카이사레아에서 안티파트리스까지 총 27km의 거리를 하루 만에 행군했다. 하루 평균 각각 28.6km, 25km, 27km를 이동한 셈이다.¹⁹⁾ 군인들의 이동 속도에 대해서는 5세기의 군사 전략가인 베게티우스(Vegetius)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그는 더운 여름 날씨에 군인들이 행군 훈련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5시간 안에 20로마마일, 즉 29.6km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해 더 빨리 이동하려면 5시간 안에 24로마마일, 즉 35.5km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

16) Tacitus, *Annales* 4.5.

17) Ammianus, *Res Gestae* 16.2.8, 17.8.2, 19.11.2, 21.6.6, 23.2.8, 23.3.6; Zosimus, *Historia Nova* 1.43, 4.10, 5.50.

18) S. P. Mattern, *Rome and the Enemy: Imperial Strategy in the Princip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99.

19) Josephus, *Bellum Judaicum* 2.500-513.

다.²⁰) 이를 볼 때 대규모 군수품 행렬을 대동한 케스티우스 군대의 이동 속도가 느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세푸스의 비난과 달리 전략적인 측면에서 케스티우스의 원군 파견은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진 듯 보인다. 상황의 진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한 회의를 거친 후 군대 파견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우선인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한 후 대책이 결정되면 케스티우스는 신속하게 결정 사항을 이행했다. 군대 모집과 이동이 빠르게 이행된 것을 볼 때 케스티우스의 우유부단함을 유대 전쟁 장기화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3. 가바오 전투 패배의 원인 분석

요세푸스가 케스티우스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은 가바오 전투에서의 패배이다. 가바오에서 유대인들은 로마군의 대열 중심부로 공격해 들어와서 로마군을 살상했다. 만약 대형 주위에 있던 기병과 일부 보병의 도움이 없었다면 전멸할 위기에 있었다. 로마군의 피해가 유대인과 비교하여 얼마나 컸는지는 사망자 수에서 알 수 있다. 로마군은 515명이나 사망했으나 유대인의 사망자 수는 22명에 불과했다. 유대인들은 전투 후 베스호론으로 이동하려던 로마군을 공격했다. 후미에 있던 로마군은 유대인들의 매복에 걸려 상당량의 군수품을 빼앗겼다.²¹⁾

20)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1.9; Plinius, *Naturalis Historiae* 19.3-4; Lucianus, *Navigium* 9.

21) Josephus, *Bellum Judaicum* 2.517-522.

요세푸스의 글에서 비판받는 케스티우스의 전략적 실책은 첫째, 대형의 측면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보병 중심의 전투에서 가장 취약한 곳은 대형의 배후와 측면이었다. 베게티우스에 따르면, 적지를 행군할 때 행군 경로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병사들이 급습이나 매복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했다. 군사령관은 예기치 않은 공격에 대비해 우수한 병력을 전방과 후미, 대형의 좌측과 우측에 두어야 했다. 또 적군이 야군의 대형을 파괴하려고 할 때 원형 대형을 형성하여 전체 병력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²²⁾

요세푸스의 글에서 케스티우스가 이러한 기본 전략을 무시한 채 대형의 측면을 보호할 병력을 두지 않았는지는 의문이다. 유대인들이 로마군의 대형을 공격할 때 기병들이 대형 주위에 있었고, 보병들 역시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케스티우스의 군대에서 기병의 역할이 눈에 띈다. 로마군은 말 사육 비용과 훈련 비용, 훈련 시간이 많이 드는 기병보다 보병에 역점을 두었다. 기원전 1세기 말 유구르타(Jugurtha) 전쟁 후 군단에서 기병의 모습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카이사르(Julius Caesar)가 아리오비스투스(Ariovistus)와 회담할 때 기병이 필요했으나 일부 보병들에게 말을 태운 것도 이 때문이었다.²³⁾ 로마 군단 내에 기병이 편성된 것은 1세기 즈음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는 요세푸스가 120명의 군단 기병(*equites legionis*)이 군단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⁴⁾ 또한 비문에 아일리우스(Aelius Severus)는 제3군단에서 율리우스(Julius Candidus)가 지휘하는 백인대의 기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⁵⁾ 군단 내의 기병뿐만

22)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1.26, 3.6.

23)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95; Caesar, *Bellum Gallicum* 1.42.6.

24) Josephus, *Bellum Judaicum* 3.6.2.

아니라 아그리파 2세와 소아이무스가 보낸 병력 중 $\frac{1}{3}$ 에서 $\frac{2}{3}$ 는 기병대였다. 이들은 그 수가 보병 못지않았고, 대형 주위에 포진해 있었다. 따라서 케스티우스 휘하의 병력에서 기병대가 군단에서 보병의 대형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요세푸스의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케스티우스의 두 번째 실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군수품의 행렬을 후미에 두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군수품 행렬을 적의 공격을 받기 쉬운 후미에 두어 상당수의 군수품을 적에게 빼앗긴 것을 케스티우스의 실책으로 꼽았다. 셰퍼드(Si. Sheppard)는 케스티우스가 자만하여 정찰도 소홀히 하고, 군수품 행렬도 본대 뒤에 두었다고 비판했다.²⁶⁾ 이런 비난의 정당성은 다른 전투 사례들과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다.

군수품 행렬의 위치는 실제 전투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가령 로마군과 동행했던 상당수 갈리아인이 네르비이인(Nervii)에게 로마군의 두 군단 사이에 상당히 긴 군수품 행렬이 있다고 알려주었다.²⁷⁾ 로마군이 적의 공격으로 뒤로 물러나거나 전진할 때도 군수품과 수송용 동물을 중앙으로 몰아넣었다.²⁸⁾ 58년 아르메니아의 티리다테스 1세(Tiridates I)가 흑해 지역에서 로마군을 포위했을 때 로마군의 수송 행렬은 대열 사이에 끼어있었다.²⁹⁾ 67년 베스파시아누스가 갈릴리로 진격할 때 제일 먼저 정찰 부대인 기병대와 기마 궁수가 출

25) H. Dessau, *Inscriptiones Latinae Selectae*, Berlin, 1892-1916, 2326 in H. M. D. Parker, *The Roman Legions*, Oxford: Clarendon Press, 211 재인용.

26) Si. Sheppard, *The Jewish Revolt AD 66-74*, 10-11; 75; S. G. F. Brandon, "The Defeat of Cestius Gallus, A.D. 66", *History Today* 20, 1970.

27) Caesar, *Bellum Gallicum* 2.17.

28) Livius, *Ad Urbe Condita* 8.8, 30.30-35; Polybius, *Historiae* 3.113, 15.9-14; Caesar, *Bellum Civile* 1.83, 3.88; Dio, 49.30;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2.6.

29) Tacitus, *Annales* 1.50-51, 3.45, 13.40.

말했다. 이어서 보조군 기병대와 보병대, 군사령관과 경호 기병대, 군단 기병대가 주둔지를 나갔다. 그다음에 각 군단이 천부장, 백부장과 함께 각 백인대별로 출발했다. 그 뒤에 비로소 군수품 행렬과 용병부대가 있었다. 마지막에는 후미를 지키는 보병과 기병이 따라왔다. 70년 티투스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때는 창병과 기병, 공성 장비, 기수, 보병이 있었다. 그 뒤에 군수품 행렬과 용병부대가 있었고, 후미를 지키는 병사들이 마지막에 따라왔다.³⁰⁾ 이 사례들을 볼 때 군수품 행렬의 일반적인 배치 장소는 대형 중앙이었다. 전투를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수품이었기 때문에 중앙에 배치하여 아군 병력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적의 탈취 공격을 차단하고자 했다.

하지만 군수품 행렬이 항상 중앙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9년 토이토부르크(Teutoburg) 숲에서 바루스(Publius Quinctilius Varus)는 아르미니우스(Arminius)의 매복에 걸려 3개 군단을 잃었다. 이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군수품의 수송 마차 행렬을 대형 중앙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전투 병력과 뒤섞여 군단병들은 대형을 만들기도, 전투를 벌이기도 어려웠다.³¹⁾ 69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베드리아쿰(Bedriacum) 전투에서 오토(Otho)가 패배한 이유, 크레모나(Cremona) 전투에서 비텔리우스(Vitellius)가 패배한 이유는 모두 군수품 수송 동물과 마차를 대형의 중앙에 뒹으로써 전투에서 이들이 전투 병력과 뒤섞여버렸기 때문이다.³²⁾ 대형 중앙에 군수품 행렬을 두는 것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행군

30) Josephus, *Bellum Judaicum* 3.115-126, 5.47-48; Arrianus, *Ectaxis contra Alanos* 1-11.

31) Dio, 56.20; Tacitus, *Annales* 1.63.

32) Tacitus, *Historiae* 2.41, 3.25.

해 갈 때는 유익하지만 급습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전장에서는 전투력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투 병력이 이들 비전투 병력과 뒤섞여 대형의 전개나 백병전을 펼치는 데 방해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515명에 달하는 전투 병력이 사망하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적의 또 다른 공격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케스티우스가 군수품 행렬을 중앙에 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케스티우스는 군수품 행렬을 후미에 두면서 보호 조치로서 호송 부대를 배치했던 것 같다. 유대인들이 후미에서 철수하던 로마군을 습격하고, 군수품을 빼앗았다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군수품 행렬과 이들을 보호하는 부대였을 가능성이 있다. 기원전 141년 스페인에서 폼페이우스(Pompeius Aulus)가 천부장의 지휘하에 몇 개의 백인대를 군수품 호송 병력으로 파견한 것, 69년 로마군이 군수품 수송 행렬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것에서 보듯이 이는 일반적인 사례였다.³³⁾ 따라서 케스티우스가 위험한 지역에서 전투 병력의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군수품 행렬을 호송 부대를 대동하여 후미에 둔 것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추측된다.

기병을 활용한 대형 보호, 군수품 보호와 신속한 이동을 고려한 군수품 행렬의 후미 배치 등이 적절한 조치였다면 가바오 전투의 패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전략적 특징을 알 필요가 있다. 요세푸스는 “로마인들이 거대한 영토를 획득한 것은 행운이 아니라 그들의 용맹함에 기인한 것이다.”, “로마군에게 훈련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투였고, 전투는 피를 흘리는 훈련이었다.”, 패배하더라도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므로 “로마군은 패배를

33) Appianus, *Hispanica* 13.77; Tacitus, *Historiae* 4.35.

단순히 행운으로 얻는 승리보다 더 낫다고 여긴다.” 등의 문구들로 로마군을 규정했다. 그는 훈련이 잘된 조직력, 엄격한 규율, 병사들의 잘 갖추어진 무장 상태와 공성 장비들을 로마군의 장점으로 꼽았다.³⁴⁾

대규모 병력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로마군에 반해 유대인들은 가볍게 무장했고, 조직적인 훈련을 하지도 않았으며, 투석에 의존했다. 무질서한 유대인들이 완벽한 전열을 갖춘 로마 군인들을 상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무기나 들었던 유대인들이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상대로 싸우는 형국이었다.³⁵⁾ 유대인들은 훈련이나 조직, 무기는 열악했지만 가볍게 무장했으므로 기습공격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로마군을 급습하여 타격을 준 후 적이 반격해오기 전에 재빨리 도망치는 게릴라식 전술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³⁶⁾

전열을 질서정연하게 갖추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로마군이 게릴라 전술을 펴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는 67년 아스칼론(Ascalon) 전투가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전투에서 보병대 1개 대대와 기병대 1개 대대를 지휘한 안토니우스(Antonius)는 적은 병력으로 적들을 물리쳤다. 주효했던 전략은 넓게 트인 평지에서 전투한 것이다. 개방지에서는 기병들이 운신할 폭이 넓었고, 이로써 기병들은 유대인들의 전열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도주하는 유대인들까지 따라잡을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로마군에게 유리한 지형은 대규모 병력이 대형을 전개

34) Josephus, *Bellum Judaicum* 1.22, 1.142, 2.529, 2.580, 3.70-109, 3.167, 3.214-217, 3.243-249, 3.467, 3.484, 5.79, 5.121, 5.285, 5.353.

35) Josephus, *Bellum Judaicum* 2.512, 3.15, 3.113.

36) Plutarchos, *Pyrrhus* 22.4-6, 25.1, 11.24; Do, 10.6.48;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Vita Gallienii* 13.8; Zosimus, *Historia Nova* 1.43; Josephus, *Bellum Judaicum* 2.543, 3.207, 3.275, 3.478-479.

하고, 기병을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지형이었다.

기원전 275년 베네벤통(Beneventum) 전투나 268년 나이수스(Naissus) 전투에서처럼 적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개방지나 매복지로 적을 유인하는 전략이 로마군에게 적합했다.³⁷⁾ 84년 그라우피우스(Graupius) 전투 또한 전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전투는 로마군이 브리타니아의 칼레도니아(Caledonia) 군대를 물리치고 스코틀랜드까지 정복한 전투이다. 로마군은 적의 장검이 백병전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백병전으로 평지의 적을 죽이고 완만한 경사면에 있는 적들을 꼭대기로 밀어붙였다. 언덕 꼭대기의 적들이 로마의 측면 공격을 시도할 때 로마군 기병들이 재빨리 적의 측면과 배후를 공격함으로써 승기를 잡았다. 이 전투는 로마군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기병과 보병이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지형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음을 보여주었다.³⁸⁾

개방지가 로마군에게 유리하다면 역으로 이는 유대인들에게 불리한 지형이다.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지형은 아스칼론과 같은 개방지가 아닌 폐쇄적인 지형일 것이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가 가바오 전투 후 유대인들이 산악지역을 장악하자 이것이 로마군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협상을 시도한 것이다. 요세푸스 또한 유대인들은 산악 지형을 활용한 전략에 의존하고, 개방지에서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³⁹⁾ 유대인들은 병력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방지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했기에 산악 지형에 의존했다. 급습과 매복 전략에 의존하는 유대인들은 지형에 익숙하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유대인들을 개방지로 유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로마군이 취

37) Josephus, *Bellum Judaicum* 3.9-21; B. Bar-Kochva, "Seron and Cestius Gallus at Beith Horon", 20-21.

38) Tacitus, *Agricola* 34-46.

39) Josephus, *Bellum Judaicum* 2.523, 2.547.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장악한 산악지역으로 가는 것이었다. 산악 지형에서 전투할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베게티우스의 글에서 알 수 있다. 전투 지형에 관해 베게티우스는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최적의 장소는 높은 곳이라고 했다. 고지는 배수와 통풍이 잘되는 이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적의 돌, 화살, 창 공격을 막기 쉬웠다. 아래에 있는 군대가 고지에 있는 적군을 맞추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고지는 공격에도 용이했다. 위에서 아래로 발사물을 던질 때 공격의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다.⁴⁰⁾ 갈리아의 게르고비아(Gergovia)나 유대의 마사다처럼 지형이 깊고 가팔라서 접근이 어려운 고지에 요새를 구축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⁴¹⁾ 6세기 비잔틴의 무명(Anonymous Byzantinus)의 전략가도 적지, 특히 산악 지대를 통과할 때 아군의 부대가 인근의 고지를 점령해 놓기 전에는 행군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⁴²⁾

고지를 점령하여 승리한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가령 기원전 387년 알리아(Allia) 강에서 갈리아군과의 전투에서 로마군이 언덕을 선점하여 작전상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기원전 310년 키미니아 숲(Silva Ciminia) 전투에서 로마군이 에트루리아군에 대한 수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거칠고 돌이 많은 언덕 지역을 차지한 것, 기원전 224년 텔라몬(Telamon) 전투에서 언덕을 선점하기 위해 로마군과 갈리아군 기병대가 격돌한 것, 기원전 211년 카푸아(Capua) 전투에서 로마군이 유리한 언덕 지역을 점령하여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을 보자 한니발(Hannibal

40)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8.

41) Caesar, *Bellum Gallicum* 7.36; Josephus, *Bellum Judaicum* 7.276-280.

42)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6; Anonymous Byzantinus, *De Re Strategica* 2.2.245b.7 in M. Gichon, "Cestius Callus's Campaign in Judaea", 53 재인용.

Barca)이 카푸아를 포기한 것, 기원전 102년 아쿠아이 섉스티아이(Aquae Sextiae) 전투에서 로마군이 언덕을 선점, 아래의 게르만족을 공격하여 승리한 것, 기원전 58년 비브락테(Bibracte) 전투에서 카이사르가 언덕에서 내려오면서 공격하는 동시에 우익을 보강하면서 헬베티인(Helvetii)의 측면을 공격하여 승리한 것 등이 그 사례들이다.⁴³⁾

케스티우스가 전략서와 그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 전투 사례는 오래전의 일이라서 몰랐다면 바로 직전에 벌어졌던 아사몬(Asamon) 전투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전투는 케스티우스가 세포우스(Sepphous)로 파견한 제12군단의 군단장 카이세니우스(Caesennius Gallus)가 지휘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의 요새라고 불리는⁴⁴⁾ 아사몬 산으로 들어가 높은 곳을 점령하고 있었다. 고지의 유대인들은 로마군의 공격을 수월하게 막았을 뿐 아니라 노출된 로마군을 공격하기 쉬워 200명을 살상했다. 이에 로마군은 산을 우회하여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곳을 점령하여 승리했다.⁴⁵⁾ 전략서와 실제 전투 사례를 볼 때 로마군은 고지를 점령해야 유대인과의 전투에서 승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요세푸스도 인지하고 있는 바였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케스티우스는 군수품을 빼앗긴 후 그곳에 3일 동안 지체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고지대를 점령한 채 로마군의 움직임을 감시하여 로마군은 선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⁴⁶⁾ 이를 볼 때 케스티우스의 전략적 실책은 고지를 점령하지 않아 로마군의 움직임을 적에게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43) Livius, *Ad Urbe Condita* 5.37-39, 9.36; Plutarchos, *Camillus* 18-31; *Marius*, 10-20; Polybius, *Historiae* 2.22-30; Caesar, *Bellum Gallicum* 1.23-26.

44) Josephus, *Antiquitates Judaicae* 18.27.

45) Josephus, *Bellum Judaicum* 2.510-512.

46) Josephus, *Bellum Judaicum* 2.522.

고지 점령과 관련하여 하나의 전략이 눈에 띈다. 272년 다프네(Daphne) 전투에서 로마군은 팔미라(Palmyra)의 군대와 싸워 승리했다. 이 전투에서 언덕 지역을 점거한 적군은 가파른 경사로 인해 로마군이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로마군은 귀갑대형(*testudo*)으로 적의 화살과 돌을 피하면서 전진하여 승리했다.⁴⁷⁾ 케스티우스 역시 이 전략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구사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공격할 때 로마군이 방패를 들어 귀갑대형으로 전진한 것이다. 다만 성벽 돌파에는 사용했으나 고지 점령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케스티우스와 마찬가지로 베스파시아누스도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다. 67년 10월 가말라 전투에서 베스파시아누스는 좁고 가파른 지역에서 내려오는 유대인들에게 밀려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로마 군인이 살해되었고, 로마군의 사기는 저하되었다. 또 11월 사면이 암석으로 되어 오르기 힘든 타보르 산에서 유대인들이 고지를 점하고 있어서 로마군의 화살 공격은 통하지 않았다. 전투 후 베스파시아누스는 사기가 저하된 병사들에게 “적이 고지에 있을 때 여러분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여러분이 저지를 장악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물러나서 더 안전한 전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지에서 고지를 겨냥한 부주의하고 경솔한 전투가 패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케스티우스와 베스파시아누스 모두 산악 지형과 고지 점령을 활용한 유대인들의 전술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유대인들을 상대로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규모 병력으로 대형 전투를 펼치는 로마군으로서는 익숙한 지리적 환경을 선점

47) I. Syväne, *Aurelian and Probus: The Soldier Emperors Who Saved Rome*, Barnsley: Pen & Sword Books Limited, 2020, 92-126.

하여 소규모의 게릴라 전술을 펴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승리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유대인의 수십 배가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바오 전투에서 케스티우스는 대형 전개에 있어서 실책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그는 기동성 있는 기병들로 대형을 보호했다. 군수품을 후미에 두어 적에게 빼앗겼다는 비난 또한 케스티우스에게 적합하지 않다. 군수품 행렬은 일반적으로 대형 중앙에 두었으나 이는 전투력 저하와 기동력 저하를 불러온다. 급습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군수품 행렬을 후미에 둘 수 있었다. 케스티우스의 패인은 대형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지형적 특징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산악 지형을 활용한 기습과 게릴라식 공격에 의존하는 유대인을 제압하지 못한 것이다. 케스티우스는 로마군의 일반적인 전략을 따랐으나 유대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면이 있다. 따라서 그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총체적인 비난은 전략 교본과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베스호론 전투 후 전략적 철수

요세푸스는 케스티우스가 예루살렘을 장악할 기회를 두 번이나 놓쳤다고 했다. 한 번은 케스티우스가 예루살렘 상부 도시의 헤로데스 왕궁 앞에 진을 친 후 성벽 안으로 강제 진입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플로루스에게 매수된 지휘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진격했다면 예루살렘 전체를 장악하여 전쟁을 종결지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한 번의 기회는 6일 후 갑자기 공격을

중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철수한 것이다. 케스티우스의 공격에 폭도들이 당황하여 도망갔고, 주민들이 성문을 열어주었다. 이때 케스티우스가 예루살렘 성문에서 조금만 더 오래 머무르면서 계속 공격했다면 예루살렘을 금방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요세푸스의 주장이다. 케스티우스가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닌데 희망을 접고 군대를 철수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다.⁴⁸⁾ 그 이유에 대해 커랜(J. R. Curran)은 “케스티우스가 이상한 결정”을 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을 장악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당면한 재난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케스티우스가 군사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다.⁴⁹⁾

요세푸스 주장의 타당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 케스티우스의 상황이 진격할 여건을 갖추었는지, 진격했다면 정말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베게티우스의 조언처럼⁵⁰⁾ 유리한 상황이나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도 케스티우스가 진격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실책이지만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서 진격하지 않았다면 그의 오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판단을 위해서는 진격하는 데 필요한 병력, 병참, 지형, 날씨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시 케스티우스가 지휘하는 병력으로서 전체 군단이 온전히 있는 것은 제12군단뿐이었다. 이 군단은 62년 아르메니아에서 군사령관 파이투스(Lucius Caesannius Paetus)의 지휘하에 승리를 갈망하여 안전한 겨울 주둔지를 떠나 파르티아와 정면 대결했으나 패배한 전력이었다.⁵¹⁾ 패배 후 군단은 손실된 병력

48) Josephus, *Bellum Judaicum* 2.527-532, 535-545.

49) J. R. Curran, “The Jewish War: Some Neglected Regional Factors”, 75-91; J. J. Bloom, *The Jewish Revolts against Rome, A.D. 66-135*, 75.

50)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26.

이 보강되지 않았고, 전력도 저하된 상태에서 유대에 파견되었다. 가바오 전투에서 제12군단이 군기를 적에게 빼앗긴 사실만으로도 허약한 군단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원전 53년 크라수스(Marcus Licinius Crassus)가 카라이(Carrhae) 전투에서 대패하여 군기를 빼앗겼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빼앗긴 군기를 반환받은 것을 기념하는 부조를 새겼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⁵²⁾ 군기 상실은 그 군단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는다. 제12군단이 그런 전력인 것이다. 케스티우스의 나머지 병력은 3개 군단에서 뽑은 분견대와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여러 도시에서 선발된 정식 군인이 아닌 지원자들이었다. 지원자들은 정식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고, 전투보다는 약탈에 더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다.⁵³⁾ 이런 병력으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강제 진입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⁵⁴⁾

예루살렘 공격에 앞서 케스티우스의 군수품 상황과 병참선의 안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군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의 중요성은 “식량 공급과 군수품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타격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아도 정복된다.”라는 베게티우스의 말에서 알 수 있다.⁵⁵⁾ 배후의 병참선을 확보하여 군수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공성전이 가능하다. 67년 베스파시아누스는 예루살렘을 즉각 공격하지 않았다. 이유는 배후인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적대 세력이 존재한다면 로마군의 병참선을 단절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중요한 요새를 점령하는

51) Tacitus, *Annales* 15.10-11.

52) Suetonius, *Vespasianus* 4; Plutarchos, *Crassus* 17-33; P. Susan, “The Defeat of Crassus and the Just War,” *Classical World* 96.4, 2003, 387-396.

53) Josephus, *Bellum Judaicum* 2.502-509.

54) A. Goldsworthy, *The Roman Army at War: 100 BC-AD 20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84-95.

55)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26.

데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다.⁵⁶⁾

요세푸스는 케스티우스가 어떻게 군수품을 확보하는가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다. 케스티우스는 프톨레마이오스, 카이사레아, 요파를 장악했고, 카이사레아를 기점으로 세포리스, 안티파트리스, 가바오 등지로 이동했다. 그가 카이사레아에서 일부 병력을 요파에 파견하면서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이용했던 것으로 보아 해안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는 육로로 내륙 깊숙이 들어갔을 때 뒤쪽의 해안선이 확보된다면 해로로 안정적으로 군수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즉, 해안선을 병참선으로 간주했던 것 같다. 다만 병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긴 병참선은 오히려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체 병력을 너무 넓게 퍼뜨리지 말라.”는 베게티우스의 말을 고려할 때 긴 병참선은 전략적으로 힘의 낭비 내지는 분산만 초래했던 것 같다. 따라서 실제로 병참선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했다.⁵⁷⁾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가바오 전투에서 군수품과 공성 장비들을 상당히 빼앗겼기 때문에 군수품이 부족하고, 주변이 적대적인 유대 지역이므로 군수품 공급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로마군은 가바오에서 군수품을 빼앗기고 스코푸스 산에서 3일 동안 인근 마을로 가서 식량을 구했다. 식량을 구했어도 산악지역인 관계로 2만 명이 넘는 병력이 먹을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4일째 되는 날 로마군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궁 맞은편에 진을 칠 때부터 철수할 때까지 대략 2주 정도였다.⁵⁸⁾

병사들이 2주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식량을

56) Josephus, *Bellum Judaicum* 3.29-58; J. Roth, *The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 264 B.C.-A.D. 235*, Leiden: Brill, 1999, 286-297.

57)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26; Josephus, *Bellum Judaicum* 2.507-508.

58) B. Bar-Kochva, “Seron and Cestius Gallus at Beith Horon”, 18.

가지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병사 한 명당 가지고 다니는 식량의 양은 정해진 것이 없었다.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는 ‘반 달 이상의 식량’⁵⁹⁾을 가지고 다닌다고 했으나 이는 상당히 부정확한 표현이다. 3-4세기의 기록에서 알렉산데르(Alexander Severus) 황제가 전쟁 지역에 있는 동안 군인들은 적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보통 가지고 다니던 17일분의 식량을 반드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했다.”⁶⁰⁾거나 “군인들이 전쟁터로 갈 때 17일분의 식량을 짊어지고 갔다.”⁶¹⁾는 표현이 있다. 하지만 로마군은 갑옷, 투구, 방패, 창으로 무장을 하고, 튼튼한 바구니, 곡괭이, 갈고리, 쇠사슬같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가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의 식량을 짊어지고 가기 어려웠다. 또 요세푸스가 당시 로마 군인들이 ‘3일분의 식량’을 가지고 다녔다.⁶²⁾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3일 이상의 주둔은 군수품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기 위한 공성전을 제대로 시도했다면 군수품 부족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군수품 부족은 적의 요새를 공격하는 측에도 치명적이다. 가령 356년 율리아누스(Flavius Claudius Julianus) 황제가 갈리아의 겨울 주둔지에 있을 때 알레마니족(Alemanni)이 포위했다. 로마군은 전략가들의 권고처럼 포위전에 대비해 요새를 지을 때 물과 식량을 비축해 놓아서 식량 문제가 없었다.⁶³⁾ 오히려 포위하는

59) Cicero, *Tusculanae Disputationes* 2.37.

60)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Alexander Severus* 47.1.

61) Ammianus, *Res Gestae* 17.9.2.

62) Josephus, *Bellum Judaicum* 3.95.

63)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4.7-10.

알레마니족이 주위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여 40일만에 포위를 풀고 떠났다.⁶⁴⁾ 이 사례를 보면 도착했을 때 이미 식량 부족 문제를 안고 있었던 로마군은 군수품 부족으로 예루살렘 공성전을 시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버틸 수 있는 식량만 큼이나 공성 장비들도 필요했다. 공성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자재를 구할 시간, 장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건설 공사를 할 시간도 있어야 했다. 공성전을 위해서는 아군 보호용 이동로(*vineae*)와 공성탑(*turris*)이 있어야 한다. 이동로는 화살, 돌, 불 등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면서 적의 성벽 가까이 이동할 수 있는 장비이다. 공성탑은 내부에 사다리와 도개교를 통해 적의 성벽을 넘을 수 있는 장비이다.

리비우스(Titus Livius)와 암미아누스(Ammianus Marcellinus)는 공성전에 “비틀림 노포와 기계(*tormenta machinaeque*)”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계에는 스크르피오(*scorpio*)나 발리스타(*ballista*) 같은 화살이나 돌을 발사하는 노포, 적의 성문을 파괴하는 파성퇴(*arietes, krioi*)도 포함된다.⁶⁵⁾ 스크르피오는 기원전 50년경부터 사용된 가벼운 노포였다. 발리스타는 양팔을 비트는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이나 돌을 발사하는 장비이다. 100년경 도입된 ‘수레에 싣고 가는 발리스타(*carroballistra*)’는 청동 원통을 가진 것으로서 무게로 인해 4개의 바퀴 위에 싣고 다니는 무기이다. ‘수레에 싣고 가는 발리스타’는 한 군단에 55대, 즉 한 백인대마다 1대씩 있는 셈이었다.⁶⁶⁾

이러한 공성 장비들은 기술과 인력,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토목

64) Ammianus, *Res Gestae* 16.4.2.

65) Zosimus, *Historia Nova* 1.70, 2.23-26, 3.17-18; Ammianus, *Res Gestae* 20.11, 24.2; Livius, *Ab Urbe Condita* 6.9.2.

66)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2.25.

공사를 필요로 한다. 이 장비들을 성벽 가까이 끌어올려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성로(*agger*)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67년 요타파타 전투에서 베스파시아누스는 4일 만에 공성로를 닦았으나 예루살렘 인근의 지형은 바위가 많고 단단한 지층이어서 공성로 건설에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카이사르가 아바리쿰(*Avaricum*) 전투를 위해 공성로를 건설하는 데 25일이나 걸렸던 것처럼 지형에 따라 공성로 건설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었다.⁶⁷⁾ 공성전을 위한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 주변이 우호적인 것도 아니었다. 로마군의 공격 소문을 듣고 유대군에 자원하는 유대인들이 점점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로마군은 병력이 보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군의 수는 더 증가한 것이다.⁶⁸⁾ 따라서 적대적인 지역에서 공성전을 펼칠 수 있는 병력도, 장비도, 시간도, 자재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예루살렘 공성전을 포기한 케스티우스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격할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수한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지형과 날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마군이 있었던 상부 베스호른 지역은 산악 지형이었다. 동쪽은 절벽이고, 서쪽은 가파른 경사면을 가진 깊은 골짜기여서 접근하기 어려웠다. 로마군은 지형적으로 익숙지 않아 공격의 장소를 찾기 어려웠던 반면 유대인들은 지형에 익숙했고, 게릴라전에 능숙했다. 개방된 지형에서의 백병전에 익숙했던 로마군은 경사면에서 보병과 기병 모두 고전하고 있었

67) Zosimus, *Historia Nova* 1.70, 2.23–26, 3.17–18; Livius, *Ab Urbe Condita* 6.9.2; Caesar, *Bellum Gallicum* 2.12, 7.25; Josephus, *Bellum Judaicum* 2.545, 3.7; P. Oleson, ed., *The Oxford handbook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 the classical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699–701.

68) Josephus, *Bellum Judaicum* 2.545.

다.⁶⁹⁾ 9년 바루스의 패배 후 로마군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작전을 펼치는 것을 꺼렸다. 적의 게릴라식 공격을 당할 수 있었고, 매복에 걸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케스티우스의 입장에서는 지형이나 전략이 모두 로마군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이었다.

날씨 또한 변수였다. 당시는 11월 하순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다. 이때는 춥고 비가 오는 겨울이 다가온 시점으로써 군인들이 이동하기도 어렵고, 전투 자체도 힘들었다. 날씨도 문제이지만 들판에 곡식이 없어서 식량의 현지조달이 어렵다는 점도 겨울 전쟁을 꺼리는 이유이다. 로마시에서 3월 1일에는 전쟁의 신인 마르스 신을 모시는 사제들(*Salii*)의 개전 의식이 진행되었다. 10월 19일에는 전쟁을 종료하는 의식, 군인들이 마르스 신의 명예를 기리는 의식을 거행했다. 이를 볼 때 전쟁을 하는 계절, 즉 전쟁 계절은 3월에서 10월까지로 들판에 식량이 있는 계절, 우기가 아닌 계절이었다.⁷⁰⁾ 따라서 계절적으로 겨울 전쟁을 꺼리는 상황에서 케스티우스가 겨울 초입에 새로운 전투를 시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식량을 구하기 어렵고, 군수품도 부족하고, 우기로 병사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전투를 시도하기보다는 철수하여 차후를 대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익할 수 있었다. 가령 272년 팔미라와 싸웠던 이마이(Immae) 전투에서 로마군은 적군의 강력한 중장 기병들을 공격하지 않고 후퇴했다. 로마군을 추격한 적군이 뜨거운 태양과 전투 장비의 무게로 지쳐 말이든, 사람이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로마군의 기병이 공격하여 승기를 잡았다.⁷¹⁾ 이처럼 전략적 후

69) Josephus, *Bellum Judaicum* 2.546-550, 3.16.

70) H. H. Scullard, *Festivals and Ceremonies of the Roman Republic*, Itach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190-198.

71) Zosimus, *Historia Nova* 1.50.

되는 더 큰 피해를 막아줄 뿐 아니라 승리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 병참, 지리, 지형, 기후 등 총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하는 무리한 전투는 오히려 군대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모한 도전보다는 전략적 철수가 더 나을 수 있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합당한 철수였다고 해도 철수에 대한 요세푸스의 어조는 사뭇 비판적이었다. 그가 말하는 케스티우스의 철수는 비겁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그가 일부 병력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자신은 몰래 달아난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 앞에서 이틀 머무른 후 3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이 더 늘어나는 것을 보자 상부 베스호론으로 이동했다. 그는 신속한 철수를 위해 군수품 수송용 동물들을 모두 죽였다. 상부 베스호론에서 유대인의 공격을 받아 고전한 후 밤에 겨우 하부 베스호론으로 탈출했다.⁷²⁾ 이때 그는 공개적인 철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용맹한 병사 400명을 성벽 위에 세워놓고, 나머지 병력을 밤에 이동시켰다. 날이 밝은 후 로마군은 유대인의 추격에 잡히지 않기 위해 공성 장비를 비롯한 여러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유대인의 피해는 미미했으나 로마군은 보병 5,300명, 기병 480명을 잃었다. 중요한 전투 장비들을 내버리고, 용감한 병사 400명을 희생시킨 대가로 케스티우스는 목숨을 건졌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케스티우스는 전투 패배의 책임을 플로루스에게 떠넘기려고도 했다.⁷³⁾

케스티우스의 야간 철수가 전략적으로 타당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베게티우스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72) B. Bar-Kochva, "Seron and Cestius Gallus at Beith Horon", 20-21.

73) Josephus, *Bellum Judaicum* 2.546-555.

적이 당신의 퇴각과 공격을 즉시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장군이 보병들 앞에 기병을 배치한다. 이는 보병이 퇴각하는 것을 적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찰한 길을 따라 야간에 퇴각해야 할 것이다. 새벽에 적이 퇴각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앞서간 적을 추격할 수 없을 것이다.⁷⁴⁾

베게티우스도 퇴각 전략으로 일부 병력을 세워놓고 야간에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적의 공격을 받은 후 게릴라식의 신속한 철수가 오히려 나머지 병력 대다수를 구하고, 차후를 기약할 수 있는 유익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⁷⁵⁾ 이후 베스파시아누스가 투입되어 작전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도 케스티우스의 전략적 철수로 보호된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은 케스티우스의 우유부단함과 무능을 주장했으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의 행동은 타당성이 있었다. 제대로 된 병력, 군수품, 공성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공격할 지형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공격은 무리였다. 또 겨울 초입의 춥고 비가 오는 날씨에 공성전을 시작하기는 어려웠다. 케스티우스가 일부 병력을 세워둔 상태에서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야간에 철수한 것 또한 전략적으로 유익한 조치였다. 승리에 대한 과욕으로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고 병력 대부분을 구한 케스티우스의 판단은 차후 유대 정복의 기초가 되었다.

74)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22.

75) M. Gichon, "Cestius Gallus's Campaign in Judaea", 60.

5. 맺음말

유대 전쟁을 기술했던 요세푸스는 66년 로마군 패배의 원인을 케스티우스의 전략적 판단 착오에서 찾았다. 케스티우스가 초기에 로마군을 투입했다라면 유대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요세푸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원군 파견 전에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한 후에 군대를 모집한 케스티우스의 판단은 타당했다고 볼 수 있다. 케스티우스가 원군 파견을 결정한 후 유대 지역으로 군대가 진군하기까지 4개월이 걸렸다. 전쟁이 발발하고 군대를 모집, 이동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과 비교할 때 케스티우스의 군대 모집과 이동은 신속하게 진행된 편이었다.

가바오 전투의 패배 원인에 대해 요세푸스는 케스티우스의 대형 전략의 실책을 주장했다. 하지만 케스티우스는 대형의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기병을 활용했고, 군수품 행렬을 호송 부대와 함께 후미에 두어 여타 병력의 기동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대형 전략이 적절했음에도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유대인들의 지형 활용 전략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적이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로마군과 달리 유대인들은 경무장한 비조직적인 부대였다. 로마군은 개방지에서 유리했고, 유대인들은 산악지역에서 유리했다. 로마군은 산악지역에서 게릴라식 공격에 의존하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들을 개방지로 끌어내야 했다. 그것이 어려울 때는 산악지역의 고지를 선점해야 했다. 케스티우스는 유대인들을 개방지로 끌어내지 못했고, 고지를 선점하지 못했다. 고지로 전진하기 위해 귀갑대형 전술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확대 적용하지 못했다. 그의 패인은 산악지역의 게릴라전이라는 유대의

지역적 특수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베스호른 전투 후 철수한 것에 대해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을 장악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케스티우스가 보유한 정규 군단은 군기를 빼앗긴 허약한 1개 군단뿐이었다. 군수품도 부족했고, 배후의 병참선도 안전하지 못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한 공성전을 펼치는 데 필요한 공성 장비도, 공성 시설을 구축할 자재도 부족했다. 좁고 가파른 지형 또한 공성전을 하기에 부적합했다. 춥고 비가 오는 겨울 초입이라 전투를 시작하기에는 날씨도 부적합했다. 예루살렘을 공략하기에는 병력, 군수품, 무장 상태, 지형, 날씨 등 모든 여건이 부적합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한 도전보다 전략적 철수가 더 나올 수 있었다. 케스티우스가 예루살렘 공략을 포기하고, 병력 대부분을 야밤에 철수시킨 것은 유익한 판단이었다. 그의 철수로 인해 로마군은 전멸을 피할 수 있었고, 그 경험으로 인해 향후 유대인들의 전략에 대응할 수 있었다.

유대 전쟁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케스티우스,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실바 중에서 그 군사적 역할이 과소평가된 사람은 케스티우스라고 생각한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요타파타 점령, 티투스의 예루살렘 점령, 실바의 마사다 점령과 비교하여 케스티우스는 영토를 점령하지 못했고,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신중한 판단과 전략적 철수는 이후 지휘관들이 유대를 장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병력 수급, 병참선 확보, 공성 장비 구축 등은 로마군에게 중요시되었다. 또 유대의 게릴라 전술과 산악 지형을 활용한 전술은 로마군의 전략 수립에 참고 사항이 되었다. 유대 전쟁에서 케스티우스는 전쟁 장기화의 원인이 아니라 승리의 발판이 된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20. 9. 16, 심사수정일 : 2020. 11. 5, 게재확정일 : 2020. 12. 2.)

주제어 : 유대 전쟁, 대형 전략, 병참, 산악 지형, 전략적 철수

<참고문헌>

1. 1차 사료

- Ammianus, *Res Gestae*.
Caesar, *Bellum Gallicum*.
Josephus, *Antiquitates Judaicae*.
_____, *Vita*.
_____, *Bellum Judaicum*.
Livius, *Ab Urbe Condita*.
Polybius, *Historiae*.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Tacitus, *Annales*.
_____, *Historiae*.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Zosimus, *Historia Nova*.

2. 2차 사료

- Bar-Kochva, B., “Seron and Cestius Gallus at Beith Horon”,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08, 1976, 13-21.
Bilde, p., “The Causes of the Jewish War according to Josephus”,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in the Persian, Hellenistic, and Roman Period* 10.2, 1979, 179-202.
Bloom, J. J., *The Jewish Revolts against Rome, A.D. 66-135*, Jefferson: McFarland & Company, 2010.
Curran, J. R., “The Jewish War: Some Neglected Regional Factors”, *Classical World* 101, 2007, 75-91.
Gichon, M. “Cestius Gallus’s Campaign in Judaea”,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13, 1981, 39-62.
Goldsworthy, A., *The Roman Army at War: 100 BC-AD 200*,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Jones, B. W., “Titus in Judaea, A.D.67”, *Latomus* 48, 1989, 127–134.
- Mattern, S. p., *Rome and the Enemy: Imperial Strategy in the Princip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 Millar, F., *The Roman Near East, 31 B.C.–A.D. 337*,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 Oleson, p., ed., *The Oxford handbook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 the classical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Paltiel, E., “War in Judaea: After Herod's death”, *Revue belge de Philologie et d'Histoire* 59, 1981, 107–136.
- Paul, G. M., “The Presentation of Titus in the Jewish War of Josephus: Two Aspects”, *Phoenix* 47, 1993, 56–66.
- Price, J. J., *Jerusalem under Siege*, Leiden: E. J. Brill, 1992.
- Rajak, T., *Josephus: The Historian and His Society*, London, 1983.
- Roth, J., *The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 264 B.C.–A.D. 235*, Leiden: Brill, 1999.
- Scullard, H. H., *Festivals and Ceremonies of the Roman Republic*,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 Sheppard, Si., *The Jewish Revolt AD 66–74*, Oxford: Osprey Publishing, 2013.
- Susan, p., “The Defeat of Crassus and the Just War,” *Classical World* 96.4, 2003, 387–396.
- Syvänne, I., *Aurelian and Probus: The Soldier Emperors Who Saved Rome*, Barnsley: Pen & Sword Books Limited, 2020.

(Abstract)

Analysis for the strategy of Cestius Gallus in the year of AD 66

Bae, Eun-suk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ilitary capabilities of Cestius Gallus who led the Jewish War in 66. Josephus found the cause for the defeat of the Romans in Cestius' strategic error and military incompetence. But I think that the judgment of Cestius, who retreated troops after giving them accurate recognition of the situation, was reasonable. The Roman cavalry was used to protect the flanks of the military formation, and a convoy of military supplies was placed in the rear of the convoy to increase the mobility and safety of other troops. The defeat of Cestius was due to the lack of consideration for the terrain features of the ties of guerrilla warfare in mountainous areas.

In response to the withdrawal after the battle of Beth Horon, Josephus claimed that he had missed the chance to take control of Jerusalem. All conditions, such as troop, munitions, armed conditions, topography, and weather, were inappropriate for attacking Jerusalem. In this situation, a strategic withdrawal could have been better than an unreasonable challenge. It was a good judgment that Cestius to give up his attack on Jerusalem and withdraw most of his troops overnight.

Of the Cestius, Vespasianus, Titus and Silva who exercised command in the Jewish War, it is Cestius whose military role has been underestimated. Cestius' careful judgment and strategic withdrawal provided a foundation for subsequent commanders to take control of Judaea. The supply and demand of troops, the securing of supply lines, and the establishment of siege equipment became important to the Roman army. In addition, the guerrilla tactics of the Judaea and the tactics of utilizing the mountainous terrain

became a reference to the Roman army's strategy. In the Jewish War, Cestius was not the cause of the prolonged war, but the foundation for victory.

Keywords : Jewish War, Military Formation Strategy, Logistics,
Mountainous Terrain, Strategic Withdrawal

